

전남도, 전북과 방사광가속기 전용빔라인 구축

전북대·원광대 등과 합의... 대학 첨단 연구역량 등 경쟁력 기대 29일 유치계획서 마감 ...호남권 유치위 오늘 호소문 발표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계획서 마감에 이르는 29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전북대, 원광대 등과 전용빔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호남권 전반으로 방사광 가속기의 영향력을 넓힘으로써 유치의 정당성과 공감대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충북 등 3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전라남도는 광주·전북을 묶어 호남권으로 대응하며 국토 균형 발전, 한전공대와 연계성 등의 대의명분을 축적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 범국민서명 운동추진위원회는 27일(오늘) 국회에서 방사광 가속기 유치 200만 서명 달성을 기

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과학기술 국가 균형발전을 향한 600만 호남인의 염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구축 호소문”을 발표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26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4일 전북대와 원광대를 방문, 호남 최대 현안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협조를 당부하고 전용빔라인 구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지사는 김동원 전북대 총장, 박맹수 원광대 총장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용빔라인을 각각 구축해 이공계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들 총장들은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를 전폭적인 지지와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지사는 “대학에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적극 활용하게 되면, 대학에서 특성화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물론 이공계 분야의 연구역량도 높아져 대학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학의 질 높은 연구성과물이 산업체로 이어져 지역의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등 산학연 연계 협력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권 대학들은 지난 3월 호남권 21개 대학 총장들의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 지지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최근 대학 교수·총학생회들의 지지 성명 발표 등 과기정통부의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기초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가속기와 다른 일종의 ‘초정밀 거대 현미경’으로 신소재는 물론 바

이오, 생명과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약개발 등에 필요한 최첨단 실험장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022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착수를 목표로 이달 29일까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유치계획서를 받고, 발표 및 현장 평가를 거쳐 5월 7일까지 부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과기부는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포함해 충북 청주, 강원 춘천, 경북 포항 등에 대한 비공개 현장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따라 지역에 6조7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조4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3만7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4일 전북대와 원광대를 찾아 호남 최대 현안인 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협조를 당부하고 전용빔라인 구축을 합의했다. 이날 합의서를 작성한 뒤 기념 촬영에 나선 김지사와 박맹수 원광대 총장. <전남도 제공>

전남도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추가 공모

6월17일까지 신청 접수

전라남도는 축산 약취·질병 문제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2020년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가 공모에 들어갔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환경, 질병, 무허가축사 등 축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T를 접목한 스마트 축사와 가축분뇨처리·방역관리 시스템을 구축, 환경오염과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미래 지향적인 최첨단 축산단지를 조성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4개소를 추가 선정해 개소당 15ha규모로 올해부터 4년간 개소당 695억원에서 최대 795억원을 투자해 축종별(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개소당 사업비는 기반조성에 75억원, 교육·관제센터 20억원, 축산시설에 600억원에서 700억원이 지원된다. 신청 마감일

은 오는 6월 17일까지로, 사군을 통해 법인 또는 조합을 구성한 후 관련 서류를 전라남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방역·분뇨·ICT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농식품부 평가위원회의 종합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올해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선정으로 미래 지향적인 환경친화형 첨단축산단지를 조성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축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4년까지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기업 '우리로' 양자 암호통신 공모 선정

광주 업체가 해킹과 도청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양자 암호통신 사업 정부 공모에 선정됐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우리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한 양자 암호통신 집적화, 전송기술 고도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우리로는 2023년까지 34억원을 지원받아 세계 1위 양자 암호통신 기업인 아이디퀀티크와 기술 개발에 나선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기획자' 기관 등록

창업기업 발굴 투자·멘토링 지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근 전남지역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기관 등록을 완료했다. '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의 원활한 성장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한 지원정책으로,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사업공간 제공, 멘토링, 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남도의 예산 지원을 통해 투자지원 2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번에 '엑셀러레이터'로 등록됨에 따라 기업 직접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창업기업 육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성공 벤처기업인 등이 참여한 개인 투자조합과 모태펀드를 활용한 벤처창업펀드 조성 등 다양한 엑셀러레이팅 활동을 수행하며, 센터가 가진 인프라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 발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영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전남 최초의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계기로 전남지역 투자환경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투자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에너지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건당 최대 5000만원

전라남도는 에너지 기업의 기술·제품 경쟁력 강화와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신산업 상용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전라남도는 26일 “지난 3월 도내 에너지 관련 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에서 기업 상당수가 '시제품 제작 지원'을 희망함에 따라 1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남지역 에너지 기업에게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과 시장성이 높은 고성능 제품 개발을 지원해 에너지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천일염 생산 병행 태양광 발전 상용화' 등 9개 기업의 상용화 연구과제(R&D)를 선정·지원한 바 있다.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신청은 전남도 유망 중소기업 신청 기준에 만족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자가 결정된다. 지원 규모는 건당 최

대 5000만원이다.

'코로나19 극복 지원'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시 건당 최대 13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후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은 선정평가시 가점 2점을 주며, 매출액 감소 입증시도 사업 협약 1개월 후까지 보완하도록 완화했다.

사업 접수 등 세부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과 주관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 누리집(www.ge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순철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전남 에너지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제품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기업과 정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전남지역 에너지 중소·중견 기업에게 창의적인 기술과 제품 개발을 지원한 '에너지신산업 상용화 프로젝트'를 시행해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통합 돌봄 정보 플랫폼 '아이 친구' 시범 운영

27일부터...임신·출산 정보 제공

광주시가 임신, 출산, 육아 등 정책과 시설 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 정보 플랫폼(아이친구) 서비스를 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아이친구(1279)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아동권리보장원 등 중앙 기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시교육청 등 지역 기관 홈페이지에 흩어진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시는 연말까지 웹사이트

를 구축해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돌봄 기관 정보와 프로그램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난임 부부 수술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둘째 이상 병원비 등 정보도 담는다. 27일부터 시범운영 기간에는 전화(222-1279, 223-1279)와 오프라인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여성가족재단에 키움 지원단 지원 조직을 신설해 전문 돌봄 코디네이터가 시민 상담에 응하도록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건강과 웰빙의 대표 음식!

명암우수 농·특산물

청정지역 황토에서 충분한 일조량과 맥반석 물로 재배된 영암농특산물은 친환경농특산물로 품질과 맛이 월등합니다